광주의 중심 송정역 이동

KTX 개통 후 호남권 교통·물류·관광 중심지로

유스퀘어 크기 면적에 환승터미널·호텔 영화관·대형마트까지 의료·테마파크 등 각종 편의 시설도

호남고속철도(KTX호남선) 개통으로 광주의 중심축이 송정(동)역 방향으로 이동할 것으로 전망된다.

광주시는 송정역을 '호남권 교통·물류 중심지'로 만들고, 관광 인프라 등을 구축해 외지인을 끌어들이는 전진기지로 육성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시는 20일 시청에서 열린 KTX호남선 개통대비 전략수립 시민포럼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송정역세권 개발 방향을 제시했다.

송정역세권 개발의 중심은 단연 복합환승센터다. 광주송정역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자인 ㈜서희건설 컨소시엄(송정 라데팡스)은 빠르면 올 6월부터 2017년까지 총사업비 2300억원을 투자, 총 부지면적 2만2000㎡에 지하 3층~지상 11층(연면적 12만2000㎡) 규모의 복합환승센터를 건립할 계획이다.

센터에는 환승터미널을 비롯한 주차장, 비즈니스 호텔(150실), 영화관, 상업·유통(대형마트) 판매시설, 문화·관광·업무시설 등이 들어선다. 규모면에서 광주의 최대 상권인 '신세계백화점-유스퀘어(13만여㎡)'와 비슷한 면적에 대형 마트, 호텔·관광시설 등이 들어설 것으로 알려지면서 송정역 주변의 땅값이 폭등하는 등 송정역세권이 활기를 띠고 있다.

송정역엔 또 한국철도시설공단이 KTX호남선 개통에 맞춰 524억원을 투자해 KTX광주송정역사도 건설한다. 이번 광주송정역 1단계 개발사업에 총 2800억원의 대규모 투자가 이뤄짐에 따라 송정역을 중심으로 한 송정지역의 도심 개발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시는 1단계 사업이 완료되면 2단계 개발사업으로 송정역복합환승센터 주변에 민자유치 등을 통해 의료(병원)시설과 도심형 테마파크 등 각종 편의시설도 건립해 교통·물류·관광·문화를 연결하는 '호남권 랜드마크'로 집중 육성한다는 복안이다.

시는 특히 2단계 개발에 앞서 KTX 호남선의 첫 관문인 송정역 주변 개발을 통해 관광객 유입 등을 유도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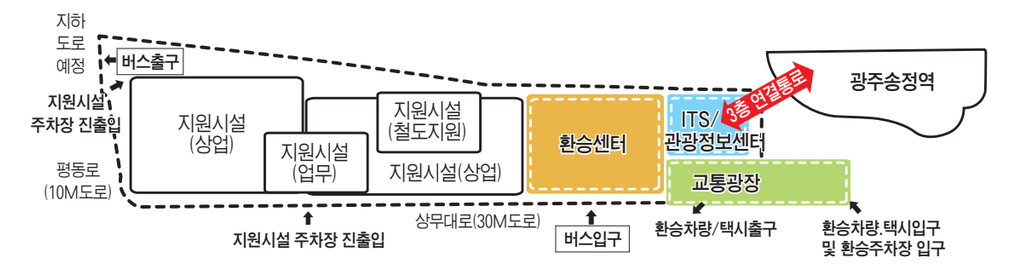
시는 우선 오는 2015년부터 245억원을 투입해 송정역세권 주변을 다문화센터 등이 포함된 아시아 음식문화 지구로 조성한다. 또 송정역 주변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 230억원을 투입, 광산구 송정동과 신촌동 등에 도로 6개를 개설하는 한편 도심 정비사업도 진행한다. 시는 송정역 주변 전통시장도 업그레이드해 관광 자원으로 적극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올해부터 2018년까지 251억원을 들여 송정매일·송정 5일·송정역매일시장 등을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육성하는 프로젝트를 가동한다.

이들 시장에는 송정역을 대표하는 송정국밥과 떡갈비 등 특화상품 등과 함께 이색 공연 등 다양한 문화 콘텐츠가 개발·운영된다.

/박진표기자lucky@kwangju.co.kr

■광주송정역 복합환승센터 개념도



20일 오후 광주시청 중회의실에서 KTX시민협의체 위원들과 관련 공무원, 시민 등 140여명이 참석해 'KTX호남선 개통 대비 전략 수립을 위한 시민포럼'을 개최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 해결 과제

KTX '광주역 정차 여부' 결정 시급 … 시외버스 터미널 이전 문제도 풀어야

KTX호남선 개통에 앞서 시급히 해결해야할 문제는 정차역 확정이다. 개통이 불과 10개월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KTX 정차역에 광주역을 포함할 것인지 등을 놓고 논란이 여전하다. KTX 정차역을 놓고 북구(광주역 경유 주장)와 광산구(송정역 단일역 주장) 등 지역 내 갈등이 심각한 만큼 하루빨리 해결돼야 한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국토부는 KTX호남선 운영(회)사가 선정되는 올해 말께나 경제성 등을 따져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 때문에 광주시는 KTX정차역 정책에 집중하지 못하는 모습이다.

광주시는 일단 국토부에 'KTX 광주역 진입'안을 제시했지만, 별다른 답변을 얻어내지 못하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 2006년 8월 호남고속철 기본계획 '1도시 1역' 방침에 따라 광주권 정차역을 송정역으로 고시한 뒤 입을 굳게 다물고 있다. 국토부는 지역 내 의견 분열에 대해 개입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KTX는 현재 평일 왕복 기준 광주역 18회, 송정역 24회 등 광주권에 42회 정차하고 있는 데, KTX 호남선이 완전 개통되면 최소 44회 이상으로 확대 운행될 예정이다. KTX정차역이 송정역으로 단일화되면 광주역(18회) KTX도 송정역으로 이동하게 된다.

이에 따라 광주시를 비롯한 광주역과 가까운 북구, 동구 주민들은 구도심 공동화와 주민 불편 등을 이유로 KTX의 광주역 경유를 주장하고 있다.

반면 광산구측은 KTX가 광주역으로 진입하면 송정역 복합환승센터의 기능이 약화되는 등 부작용이 심각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 같은 논란에 지역민의 표심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광주시와 양 지역의 정치권까지 가세하면서 지역간 갈등이 증폭된 상황이다.

특히 국토부에서 내부적으로 송정역 단일화를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자칫 광주역만 '낙동강 오리알' 신세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KTX 경유에만 매달렸다가, KTX 정차역 소외에 따른 조건부 개발 혜택마저도 제대로 못 챙길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광주시가 하루빨리 국토부와 입장 정리를 해야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광주시 안팎에선 6·4 지방선거 후 민선 6기 시작과 함께 정차역 문제가 어떤식으로든 가닥이 잡힐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이 밖에 시외·고속버스 터미널 이전과 송정역복합환승센터 바로 뒤 광산 금호타이어 공장 이전 문제 등도 금호측과 풀어야 할 숙제다.

시는 전남 서부권 등 일부 시외·고속버스 노선을 송정역 옆으로 이전 또는 경유하고, 중·장기적으론 송정역 뒤편 금호타이어 광산 공장의 이전을 통해 개발 범위를 넓힌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금호측은 시의 일방적인 주장인 만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는 등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박진표기자lucky@kwangju.co.kr

긴급 점검-지자체 파산제

하 재정 방만운영 견제 시스템 시급

#나비축제로 인지도를 높인 함평군은 예산의 10분의1도 자체 수입으로 감당하지 못하는, 재정자립도 6.05%의 '가난한' 지자체다. 1995년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2007년 터미널부지 매입 등으로 60억5000만원의 빚을 지고 있는 함평군은 매년 10억8600여만원을 들여 나비축제를 열고, 축제장인 엑스포공원 관리비로 올해 17억7800만원의 예산을 쓰고 있다.

#구례군은 지난해 청사 증축을 위해 35억원의 새로운 채무를 떠안았다. 지역발전을 명분으로 농공단지 조성에 나서 분양을 모두 마쳤지만 결국 30억원의 빚만 늘었다. 분양가를 너무 낮춘 탓이다. 구례군 역시 재정자립도는 6%, 지난해 자체 수입은 고작 175억원에 불과했다.

단체장 치적쌓기 '빚잔치 사업' 사전 자문·감독할 기관 갖춰야

재정건전성 악화 심각 낙후지역 부담 낮춰야

단체장들이 자신의 치적을 위해 무리한 사업을 벌이면서 지자체의 재정 건전성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국세의 지방세 이양, 지역 낙후를 감안한 정부 정책 등에 이어 시급한 것이 지자체가 외부 자금, 민간 투자 등을 통해 벌이는 무분별한 사업을 사전에 견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만으로는 미흡하다는 것이다.

전문성이 부족한 지자체들이 고금리로 민간 투자를 받아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에 나섰다가 검찰 수사 선상에 오르기도 했다. 동함평산업단지, 나주미래산업단지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 사업은 모두 증권사, 부동산컨설팅업체 등이 중간에서 선이자, 자문료, 수수료를 받고 사업자금을 조달, 결국 지자체는 10%대의 고금리를 내야했다.

지방 산단의 경쟁력은 낮은 분양가에 있는 만큼 제대로 수익을 낼 수 있을 지도 미지수다. 나주시와 함평군이 각각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빌린 돈은 2000억원과 550억원이다.

함평군의 올해 예산은 2681억원, 하지만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은 245억원에 불과하다. 함평나비대축제로 전국적인 인지도는 높였지만 그것에 의한 수익구조를 만드는데 한계를 보였다는 지적도 있다. 지난해 나비축제의 입장수입은 7억4000만원. 행사장 내와 관내 업체들의 수익은 각각 10억7000만원, 22억원으로 집계됐지만, 이는 군 재정과는 무관하다는 것이 문제다.

구례군 역시 사정은 비슷하다. 올해 예산은 2305억원이지만 자체 수입은 175억원으로, 자체 수입 비중이 7.59%다. 교부금이 없으면 한 달도 버티기 어려운 실정이다. 게다가 지역발전을 위해 조성한 농공단지가 모두 분양에 성공했음에도 불구하고 30억원의 빚만 남았다. 조성업체는 수익을 남기고 입주업체들은 싼 분양가 덕을 보지만, 정작 사업 주체는 '손해 보는 장사'만 한 셈이다.

전문가들은 파산제 도입을 검토하기에 앞서 투자 유치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전문성이 부족한 지자체를 위한 자문 또는 감독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강조하고 있다. 또 낙후 지역에 대해서는 사업 타당성 검토를 통해 정부가 직접 보증, 부담을 낮춰줄 필요도 있다는 입장이다.

이건철 전남발전연구원장은 "낙후된 지자체들에게 아무것도 하지 마라고 강요하기보다는 정부가 어느 정도의 틀을 마련한 뒤 좋은 사업을 벌여 지역이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파산제의 전제"라고 강조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학부 신입생 추가모집
원서접수
2014년 2월21일(금) ~24일(월)
광신대학교
입학문의 (062)605-1114

세기보청기
세기의 무대는 세계입니다!
탁월하지 않으면 세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세기보청기는 누구도 따라 올 수 없는 완벽한 기술력을 모두 갖추었습니다.
이제 세기보청기가 여러분을 행복 속으로 모시겠습니다.
대한민국 대표보청기 –
세기스타·세기보청기
www.segistar.co.kr

전국 점망
서울 삼일로점(탑골공원 삼일로 입구) : 02)2276-0587~9 강남점(강남고속터미널 앞) : 02)3477-5110 종로2가점(금강제화 옆) : 02)733-0220 송파점(석촌역 2번 출구) : 02)419-3388 경기 인천점(구.시민회관 앞) : 032)421-2288 부평점(부평역앞) : 032)517-5110 수원점(남문 옆) : 031)246-5110 의정부점(포천로터리 충국생명 앞) : 031)821-6655 안양점(벽산쇼핑2001 아울렛 앞) : 031)469-0110~1 평택점(평택역 앞) : 031)658-5110 용인점(용인네거리) : 031)336-1090 오산점(국민은행 2층) : 031)378-4183 부천점(롯데백화점옆) : 032)329-4400 남양주점(평내 호평역 앞) : 031)593-9903 부산 서면B점(서면로터리) : 051)818-8800 서면A점 818-0016 남포동점(부영극장 앞) : 051)256-7200 울산 울산점(공업탑로터리) : 052)268-2283 경남 마산점(마산역 앞) : 055)297-6060 진주점(중앙로터리 옆) : 055)745-9870 대구 동인점(동인네거리) : 053)425-4440 삼덕점(삼덕네거리) : 053)426-1511 남일동점(아카데미극장 옆) : 053)425-7575 경북 포항점(육거리) : 054)244-5110 안동점(구.안동농고네거리) : 054)859-2248 광주 광주점(금남로 4가역 사거리) : 062)225-5110 광주점(백운광장) : 062)651-4477 전남 순천점(중앙사거리 지하상가입구) : 061)752-8845 전북 전주점(진북로터리) : 063)252-5728 군산점(구.시청정문 옆) : 063)446-0198 익산점(북부시장네거리) : 063)838-5600 남원점(시장네거리) : 063)632-2626 대전 대전점(도청앞) : 042)254-5110 대전점(중촌로터리) : 042)222-3388 대전점(대전역 앞) : 042)255-4900 충남 천안점(천안역 앞) : 041)553-2888 공주점(공주근사거리) : 041)852-5110 충북 청주점(현.까르프 구.속리산고속 맞은편) : 043)222-1177~8 충주점(삼원로터리) : 043)852-1414 강원 강릉점(옥천오거리) : 033)647-0588 춘천점(팔호광장 앞) : 033)253-5110 제주 제주점(광양로터리) : 064)753-4358

세계적 권위의 인증! FDA허가!
미국 식품의약국 FDA허가 인증
국제품질 ISO 9001인증
국제의료기품질 ISO 13485인증
유럽공동체 CE마크 인증
의료용구 제조업체

상담전화
1588-8499/080-222-0100
세기보청기 대리점 사업본부 문의전화 02)538-9388

■광주점(금남로 4가역 사거리) 세기보청기 문의전화 (062)225-5110
■광주점(백운광장) 세기보청기 문의전화 (062)651-4477
■순천점 세기보청기 문의전화 (061)752-8845